

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미국 3년)	↑ 환율 (원/달러)
5277.30 (-161.57)	1107.05 (-34.46)	3.542 (-0.040)	1520.20 (+11.30)

AI 선제 투자하고
재무 안정성 챙겨
전자업계, 주춤 마무리
04



코스피·환율·유가 '3중고'... 韓 경제 먹구름

중동전쟁 한달

코스피 1000포인트 넘게 빠지고 환율 1520원 돌파, 휘발유 1900원 국내 주요지표 약세 '총체적 위기'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마치 최고가격제를 비웃듯 평균 1900원 선을 다시 넘보고 있다. 급기야 올해 물가 상승 폭은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특히 우려 섞인 수치를 내놓은 대로, 국내 주요 지표는 약세를 거듭하며 총체적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요인을 가장 크게 떠안는 몇몇 국가들에 이름을 올리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2면·3면〉

전쟁 발발 직전까지 코스피 뿔박질 영향으로 앞다퉈 국내 자본시장에 쏠리자, 때아닌 대호황기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개인 매수는 잠시 멈췄으나 단기 종전설이 퍼지면서 다시 매수 위위로 돌아섰다.

백악관발 한마디 한마디에 단타 매매

통화 CURRENCY	사실 때 YOUR BUYING	통화 CURRENCY	사실 때 YOUR BUYING
USD 미국	1,576.00	JPY 일본(100)	988.00
THB 태국	50.55	HKD 홍콩	202.00
PHP 필리핀	28.68	SGD 싱가포르	1,232.00
MYR 말레이시아	414.73	GBP 영국	2,095.50

이런 전쟁을 둘러싼 확전 우려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자리 잡은 30일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 원·달러 등 각국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뉴스1

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 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의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 또는 미수 거래에 발 담근 경우 반대매매 당하기 십상인 구조로 흘러가는 중이다.

30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57(2.97%) 내린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지속한 반면 개인은 또 사들였다.

코스피는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6일의 6307.27과 비교해 1029.97포인트(16.3%) 빠졌다. 지난 26일부터 내리세 거래일 하락했다. 각각 주당 20만 원과 100만 원을 웃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기준 17만6300원, 87만3000원으로 내려앉은 상태. 원/달러 환율은 30일 중동발 불안 지속에 152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520원 위로 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4시43분께 1521.1원까지 올랐다. 오후 3시30분 주간 거래를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515.7원으로 마친 뒤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 1561.0원)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기업 대출금리 상승 '돈맥경화' 삼성전자, 노사 입장차... 성과급 개편 결렬

美 장기국채금리 급상승 영향 韓 채권시장 자금조달 비용 상승

세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1.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428%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연 3.962%)보다 0.466%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27일에는 장 중 4.48%를 웃돌았다.

갈수록 악화하는 중동 상황(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 후퇴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흥해 봉쇄 가능성이 커지자 유가 급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

지던 미국 채권을 시장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과 달리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 만기가 긴 국채 보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경우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투에 따르면,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23%까지 올랐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보다 상회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사측, 제도유지 특별포상 제시에 노조,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 요구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로 결렬됐다. 회사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에게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을 직접 제안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사측은 "대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경쟁사 기준보다 성과급 재원을 더 사용해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도 초과이익성과급(OPI) 50% 외에 추가로 경영성과 개선시 25%를 포함한 성과급 최대 75%를 지급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OPI 제도의 상한선인 연봉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대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부문 공통 지급률이 사업부별 지급률로 분리되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을 과거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설정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김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준비... 추경에 담을 예정" /사진 뉴시스
▲예산 의무지출도 손댄다 '첫 10% ↓'...내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13개 의혹' 김병기 4차 소환 임박...차남과 '동시 소환'도 검토
▲정동영 "北인권결의안 참여, 평화공존정책에 영향 없어"

▲이명박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13년 만의 인터뷰에서 탄식
▲국힘, 초·재선 모임 '정책 2830' 출범... "28년 총선·30년 대선 준비"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4년 역사에 '뉴메트로 선인' 11주년을 맞이하는 메트로경제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00명
③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3면에 계속>



정부, 정책금융 집행 점검... “피해기업 유동성 충분히 공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0% 집행
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설명회
수은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 설치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뉴스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이달 25일 기준 목표 대비 2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은 권역별 통합마케팅과 전방위적 고객 면담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은이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은과 합

계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및 공급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부 윈스톱 수출·수주지

원단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유연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윈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유법민부 단장은 “자국 우선주의 및 무역장벽 강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 중장기 사모채, 단기 기업어음(CP) 등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를 설치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동향과 프로젝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악화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1면 ‘기업 대출금리 상승...’서 계속

올해 회사채 발행 34.5조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891%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약 50.5bp 급등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2.935%에서 연 3.542%로 뛰어올랐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신용도 낮은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른다. 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또 채권금리 상승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회사채 발행액은 34조 518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5조 4184억원)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반면 상환액은 같은 기간 29조 2120억원에서 34조 669억원으로 늘었다. 연초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줄인 영향이다. 지난해 1분기 말 3.123% 수준이던 AA-급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년 새 4.215%(이달 27일 기준)까지 뛰었다. 미국 국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최근 더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4월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 647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자금 쏠림까지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인 은행채나 특수채로 자금이 몰리면, 부채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돈뱃경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9일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노사, 위기극복에 집중”... 김정관 장관 ‘휴전’ 제안

김 장관,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면담
에너지 절약·AI 전환 등 협조 요청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위기극복에 노사역량을 집중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위기에 당면했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동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도 당

부했다.

이날 만남은 한국노총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2006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물류비 및 생산비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생산에 거대한 위기로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원유·석유 대체 수입선 확보,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전환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AI

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해 일터가 생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화업계 등 사업재편과 관련해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사업재편과 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은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전환 업종 지원 강화와 고용 유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국가지원금 20%



수수료 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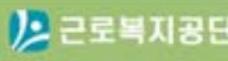
**노사정이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기금**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1조
6천억원
달성!!

푸른씨앗
홍보모임 **김성주**

산업지표 줄줄이 대기 이번주 '금리 섹법' 기로

오는 4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산업활동과 소비자물가가,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와 동결 부담을 함께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지표 묶음이 4월 회의 전 핵심 판단 재료로 읽히는 이유다.

한은, 내달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산업·물가·美 고용지표 이번주 발표 산업활동 부진, 물가 안정적이면 금통위 경기방어 필요성 더 부각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31일 발표되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직전인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고, 광공업생산도 1.9%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2.3% 늘고 설비투자도 6.8%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은 11.3% 급감했다. 생산·소비·투자·건설이 제각각 움직인 만큼 2월 지표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 흔들림이었는지, 아니면 부문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과정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산업활동동향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생산 반등 여부가 아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광공업 회복이 이어지는지, 1월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다시 꺾이지 않는지, 무엇보다 건설 부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산업활동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실물지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직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전월과 같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리동결 이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 3월 물가가 단순한 기저효과보다 중동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비용 압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한국은행이 완화 쪽으로 빠르게 기울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선 31일에 '2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 4월 1일엔 '3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월 3일엔 '3월 고용보고서'가 줄줄이 나온다.

특히 3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와 달러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연준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차와 환율 부담을 더 의식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 완화 기대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주 지표는 4월 금통위가 무엇을 더 무겁게 볼지 가능할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활동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4월 금통위에서 경기 방어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활동이 기대보다 베타더라도 물가가 들쭉이므로 미국 고용까지 견조하게 나오면 한국은행은 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중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진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1분기 환율, 외환위기 이후 28년만에 최고

환율 3일 연속 1500원 웃돌아 달러대비 원화값 하락 4.72% 집계 유로·엔화 등 주요통화 대비 하락폭 커

중동사태 지속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고환율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1분기 환율 평균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할 전망이다.

◆ 분기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30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8원 오른 달러당 1515.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지난 23일 기록한 연중 최고가인 1517.4원을 눈앞에 두며 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웃돌았다.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달 초부터 30일까지의 주간종가 평균은 달러당 1490.63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가 왔던 지난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분기 들어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64.9원으로, 월말까지 달러당 1500원 수준의 환율이 지속된다면 1998년 1분기의 달러당 1596.88원 이후 가장 높은 분기 평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중동사태' 장기화·유가 우려 지속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지난달 말 발발한 '중동사태'가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에너지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30%가 유통되는 경로다. 지난달 말 배럴당 65달러 수준이었던 서부텍사스원유(WTI)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는 110달러까지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원유 대부분을 중동산

두바이유를 수입해 충당한다. 두바이유 유통량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특히 정유시설 대부분이 두바이유에 특화돼, WTI나 브렌트유의 즉각적인 대체 도입도 어렵다. 원화값이 이번 유가 상승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 원화 약세...외국인 이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폭은 4.72%로 집계됐다. 유로(-2.62%), 엔(-2.58%), 파운드(-1.64%) 등 주요 기축통화 대비 하락폭이 컸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급 여파가 크게 미친 대만 달러(-2.11%)와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원화값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은 지난해 국내 증시 급등 당시 유입됐던 외국인자금이 전성리스크와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DB손해보험과 안전을, 건강을, 사랑을

함께, 약속

나에게 맞는 간편건강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펫밀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

社告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 추후 통지

③ 내용 :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대외 불확실성 심화... AI 선제 투자하고 재무 안정성 챙긴다

전자업계 주총 마무리

삼성전자,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시설 투자·연구개발에 110조 투입

SK하이닉스, AI 메모리 호황 대응 증설·기술투자, 재무 안정성 확보

LG전자, AI 기반 포트폴리오 전환 냉각솔루션, 중장기 성장축 평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5일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국내 주요 전자업계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경영 화두는 'AI 투트랙'으로 압축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 안정과 수익성 방어를 병행하는 흐름이 주총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선제 투자와 함께 대외 변수에 대비한 체질 개선 기조가 동시에 부각됐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전자기업은 최

근 주총에서 AI를 중심에 둔 사업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성장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재무 체력과 사업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성장과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전면이 부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가장 강한 투자 기조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메모리·파운드리·첨단 패키징 경쟁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HBM과 선단 공정 경쟁력 확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AI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경쟁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투자 없이는 시장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재무 체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회사는 최근 정기 주총에서 장기적으로 순현금 100조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며 투자 여력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증설과 첨단 공정 투자에 필요한 현금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HBM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호황에 대응한 증설과 기술 투자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비한 재무 안정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시장 성장세는 이어지

지만 공급 사이클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주총에서 로봇,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을 4대 미래 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 확대에 따라 냉각 시스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축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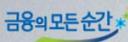
회사의 전략은 기존 가전 중심 사업 구조에서 B2B와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며,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명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NH투자증권

IMA사업자지정

기대하세요 N2, IMA1



※ IMA란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배터리 3사, 실적회복 기대 'ESS용 배터리' 핵심 변수

LG엔솔, 신규 수주 90GWh 목표 삼성SDI, 로봇·UAM 등 수주 다변화 SK온, 수익성 중심 수주·체질 개선

비전기차 사업 매출 비중을 40% 중반까지 끌어올려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북미 내 비중급계 LFP 배터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달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제시했다. ESS 시장 확대와 로봇 등 비전기차 분야 진출, 효율 중심 투자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실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특히 올해 ESS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맞춰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신규 수주 목표로 역대 최대 수준인 9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제시했고,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ESS를 포함한

삼성SDI는 전기차와 ESS를 넘어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응용처로 수주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ESS 제품 양산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온은 운영 구조 재 정비와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추형용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생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는 결국 ESS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만으로는 실적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LFP 기반 ESS 배터리 공급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하면 지난해보다 뚜렷한 수익성 개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 Premier 발행어음
사전에 약속한 수익으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발행어음은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신용등급 AAO (2026.01.12, 한국신용평가)



신한 Premier
발행어음 더 알아보기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당사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신한투자증권(AAO, 2026.01.12,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 출금 요청 시 당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상환 수익률은 상품설명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회사 자기자본의 200%이내로 발행한도를 제한하므로 발행한도 초과시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 과세는 발행어음 매도시점(중도매도 또는 만기매도)에 발생하여 원천징수됩니다. ※발행어음은 매수 건별 전액 매도만 가능합니다. ※발행어음 매매취소는 당일 매매내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변동 사항은 한국신용평가(<https://www.kisrating.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6-0271호 (2026.02.10~2027.02.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711호 (2026.02.13~2027.02.12)

에너지·과거사·정치개혁... 이 대통령, 제주서 복합 메시지

취임 300일, 제주서 타운홀 미팅
제주, 재생에너지 전환 최적 지역
국가범죄 4·3사건 재발 방지 강조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 “외부 의존은 쉽지 않고,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서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상상을 해보면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같은 것도 빨리 전기로 바꾸고”라며 “잘하고 있을 것 같은 한데, 속도를 내면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진상규명, 배상 등을 방법으로 언

급했다.

특히 배상에 대해선 “자식이 뭘 죄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나프타 이어 합성수지까지... 당정, 수급 안정 총력전

전쟁 대응 위해 추경 신속처리 합의
합성수지까지 수출 제한 확대 검토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단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라며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

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 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져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국힘 버려야 보수 살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12년만의 재도전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며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저를 키워준 도시”라며 “대구 시민 곁으로 가겠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대구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제로 취급한다”며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국힘, 초·재선 공부모임 ‘정책2830’ 출범

“선거·세대 두토끼 잡기 위한 모임”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2830’이 30일 출범했다.

‘정책2830’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초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첫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책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의미한다”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로 나뉘어서 각자 열심히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서 당과 국가, 사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대를 생각한다”며 “정책2830 모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모임”이라

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막 오른 AI(인공지능) 시대, 정책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형수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계파색이 없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모이면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작년 저축은행 점포 25곳 문 닫았다… 감소폭 10년새 최대

금감원, 79개 저축은행 점포 234개 오케이 5곳, 한투·IBK 4곳씩 폐점 임직원도 271명 줄어 총 9292명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 점포가 10년 만에 최대였다. 점포 축소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 속도 역시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 점포 수는 2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259개) 대비 25개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 2016~2020년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저축은행 점포 축소가 2021년(-10개)과 2022년(-11개)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어 2023년 -7개로 감소 추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2024년 -17개, 2025년 -25개를 기록했다.

79개 저축은행 중 점포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오케이저축은행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5개 지점을 폐점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아이비케이(IBK)저축은행도 각각 4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도 점포를 줄이고 있다. 한 은행 점포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점포를 닫았다.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은 3개, 신한저축은행은 2개의 점포를 줄였다. 이어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에이치비(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엔에이치(NH)저축은행 ▲오뚜저축은행이 각각 1개 점포를 폐점했고, 비엔케이(BNK)저축은행은 1개 출장소를 줄였다.

대형 혹은 지주사 저축은행들이 본점만 남기고 지점 점포 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실제 저축은행권의 점포 수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195개에서 지난해

141개로 50개 이상 정리됐다.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임직원 수도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전체 임직원은 92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9563명)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만 271명이 줄었다. 임직원이 1만 명이 넘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보면 3년새 총 1019명이 저축은행 업권을 떠났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저축은행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갈

은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신한상생 대환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차주와 신한은행의 저금리 상품을 비대면으로 연계해 주는 구조다.

웰컴저축은행도 최근 인공지능(AI) 금융버서를 출시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음성 인식으로 고객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도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추세"라며 "점포 하나를 내려면 임대료,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면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서민 금융 접근성 축소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주요 고객층은 5060이기 때문에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금융 공백이 커질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카드 News

현대카드 디지털 아트 독일 체트카엠에 전시

현대카드는 자사의 디지털 아트 플랫폼 '현대카드 모마(MoMA) 디지털 월'에서 소개된 작품 '살아있는 시'가 독일의 미디어 아트 센터인 체트카엠(ZKM)에 전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살아있는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카드 디지털 월에서 전시됐던 작품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결합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디지털 시를 구현한 작품이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시각 예술가 '사사스타일스'가 제작했다.

ZKM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현대카드 디지털 월에 전시된 작품을 직접 확인한 뒤,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번 전시를 결정했다. 이번 전시는 현대카드의 디지털 월 프로젝트가 유럽까지 확대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카드-넥센타이어 타이어렌탈 할인 카드

삼성카드는 30일 넥센타이어와 함께 '넥센타이어 삼성카드'를 선보였다.

넥센타이어 삼성카드는 타이어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렌탈 프로그램인 '넥스트레벨'과 연계해 렌탈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넥스트레벨 서비스 이용 시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밀착형 혜택도 마련했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10% 할인 혜택을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한다.

넥센타이어 삼성카드 혜택은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VISA) 모두 1만5000원이다.

KB국민카드, 고객추천 상품권·페이머니 증정

KB국민카드는 내달 17일까지 '응원합니다! 새학기 3가지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행사 기간 KB국민 카드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0만원(5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10명) ▲신세계 상품권 10만원(20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300명) 등 총 33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KB페이(Pay)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KB 페이머니 3만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테니스장, 수영장, 학원, 서점 등 자기계발 관련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다이소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다음달 4만 가구 분양 붐물… 물량 절반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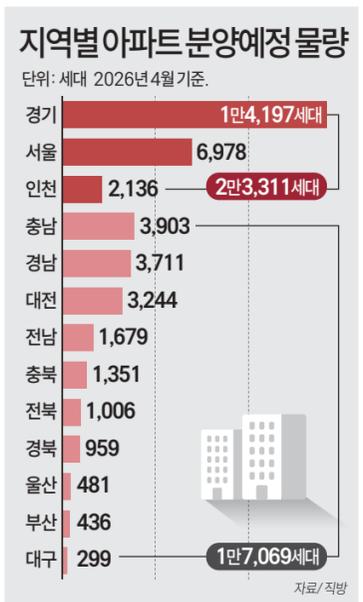
전년 동월대비 물량 2배 급증 수준 경기 1.4만 가구, 서울 6978가구 등

다음달 분양물량이 4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은 데다 연초 예정된 물량이 일부 이월됐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분양 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었다.

30일 지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38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급증한 수준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량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3월 예정 물량도 일부 이월되면서 일정이 4월에 집중됐다. 당초 3월 분양계획 물량은 총 3만 1012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은 1만8626세대에 그쳐 60% 가량만 소화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청약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면 시세차익 일부



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며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계획 물량의

변동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예정 물량의 절반은 수도권에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 419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978세대 ▲인천 2136세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은 택지지구와 대단지 중심 공급이 이어지며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디에트르(2807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양지서희스타힐스하이뷰(1265세대)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하이스트(1149세대) ▲광주시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1077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세대) ▲동작구 흑석동 씨더힐(1515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1499세대)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750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 중심의 도심 내 공급이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G5(1640세대),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496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3903세대 ▲경남 3711세대 ▲대전 3244세대 ▲전남 1679세대 ▲충북 1351세대 ▲전북 1006세대 ▲경북 959세대 등이 분양 물량으로 잡혀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1460세대) ▲충북 청주시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1351세대) ▲경남 거제시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07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온도 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유입되며 분양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수익성 악화… 당기순익 14.5% 줄어 12.2조

금감원, 2025 보험회사 경영실적 생보사 순익 11.8%, 손보사 16.2% ↓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순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손해를 상승이 보험손익을 끌어내리면서 외형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양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

난해 보험사당기순이익은 12조217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73억원(14.5%)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4조9680억원으로 6647억원(11.8%), 손해보험사는 7조2492억원으로 1조4026억원(16.2%) 각각 줄었다.

생보업계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악화됐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3527억원 줄었고,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도 1255억원 감소했다.

손보업계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를 상승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2조6741억원 급감했다. 다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이 1조1672억원 늘면서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외형은 커졌다. 지난해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266조6595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6776억원(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 판매가 늘어 12.4% 증가한 127조5061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도 장기

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판매 확대로 10.0% 증가한 139조1533억원을 거뒀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1.7% 감소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 총자산이익률(ROA)은 0.94%로 전년보다 0.21%포인트(p) 하락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86%로 1.35%포인트(p) 떨어졌다. 생보 ROA는 0.53%, 손보 ROA는 1.93%였고, ROE는 각각 5.39%, 11.47%로 집계됐다. 외형 성장에도 실제 수익창출력은 약해졌다는 의미다.

/김주형 기자 gh471@

스마트폰, AI 중심 경쟁구도 이동... 삼성 선도·애플 추격

삼성 S시리즈 AI 기능 대폭 강화
향상된 온디바이스 성능 제공

애플 음성비서 '시리' 고도화
아이폰 'AI 서비스 플랫폼' 전환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갤럭시S26 시리즈를 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앞세워 AI 스마트폰 경쟁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애플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추격에 나서고 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중심이던 경쟁 구도가 AI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에이전트 AI'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애플 역시 AI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구글 출신 임원을 AI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음성비서 '시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애플은 주요 기술기업들보다 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24년 개최한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의 AI 업그레이드 등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출시가 연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AI 담당 임원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자체 '기본 모델' 대신 구글 제미니를 채택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취해왔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내 AI 경쟁에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는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7에 달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폰17은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한 A19 프로 칩을 기반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한다. 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확장된 상황별 기억 기능을 갖춘 '시리 3.0'을 선보인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자체를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제미니나 클로드 등 AI 챗봇을 시리로 호출하는 도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빅스비를 비롯해 제미니,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체제(OS) 수준에서 연동하고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택시 호출이나 음식 주문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기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갤럭시S26 시리즈를 공개하며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갤럭시S26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프로

세서로 구동되는 '갤럭시 AI 4.0'을 탑재해 향상된 온디바이스 성능과 스마트폰 AI 기능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AI 기능 강화도 이뤄졌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향상된 ISP(이미지신호처리)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했다. 또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 AI 작업과 게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성능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경쟁을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좌우하는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스마트폰 경쟁력은 얼마나 정교한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LG이노텍, 자율주행 솔루션 고도화

美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파트너십
국내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진행 계획



(왼쪽부터)문희수 LG이노텍 사장, 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가 양사의 협력을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LG이노텍

LG이노텍은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이노텍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하는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테스트 차량에 자체 개발한 센싱 모듈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도로 인프라, 교통 흐름, 기후 조건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해 모듈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뿐 아니라 LG이노텍은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소프트웨어 및 주행 테스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직접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결합한 '복

합 센싱 솔루션' 등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을 실제 주행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이노텍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자체 '가상 센서'를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시뮬레이션 툴에 적용한다. '가상 센서'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센서실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상 환경에 구현한 것이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글로벌 상위

20개 완성차 업체중 18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시뮬레이션 툴에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아우르는 센서 '폴세트'를 구현한 사례는 LG이노텍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완성차 업체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실제 주행과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현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다.

향후 LG이노텍과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양사의 센싱 모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앞세워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희수 LG이노텍 사장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의 새로운 기준이 될 탁월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피지컬 AI 시대를 이끄는 모빌리티·로봇 센싱 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S일렉, 매년 사무직 10% 이상 신규 채용

인재 기반 글로벌 전력 시장 공략

LS일렉트릭이 전력 슈퍼사이클 속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재 확보를 내세우고 채용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의 약 10%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자근 LS일렉트릭 회장의 인재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공채 제도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채용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젊은 인재를 꾸준히 확보해 왔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채용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상하반기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학협동학과 산학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24년부터는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인근 대학과 연계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구자근 LS일렉트릭 회장은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결정적인 시기"라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 출시

'AI 와인 매니저' 기능 탑재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와인 정보 확인부터 보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 냉장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AI 비전(AI Vision)'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 와인 입출고와 보관 위치, 라벨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와인 매니저'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는 도어가 열리면 카메라가 와인병의 입출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수납된 와인의 라벨을 분석해 이름·품종·빈티지 등 세부 정보를 스마트싱스 앱에 기록한다.

보관 위치가 변경되거나 와인을 꺼낼

경우 리스트가 실시간 업데이트돼 사용자는 재고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관 성능도 강화됐다. 최대 101병까지 수납 가능한 내부 공간은 상·중·하 3개 구역으로 나뉘어 3°C에서 18°C까지 개별 온도 설정이 가능한 '트리플 냉각 존'으로 구성됐다.

중앙의 '멀티팬트리'는 와인뿐만 아니라 햄·치즈·과일 등 곁들임 식재료에 맞춰 5가지 모드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면 도어에는 UV 차단 3중 클래스 소재를 적용해 외부 자외선을 약 92% 차단하며 정온 유지를 돕는다.

디자인 면에서는 인피니트 라인 특유의 '옛지 프레임'과 블랙 메탈 소재를 적용했다. 700mm 깊이의 키친핏 설계로 빌트인 룩 구현이 가능하며 터치나 음성으로 문을 여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탑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솔루션, 재무 부담 완화... 태양광 사업 '청신호'

대규모 유상증자 기반 수익 개선 전망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재무 부담 완화와 미래 태양광 기술 투자 여력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따른 1분기 흑자 전환 기대도 맞물리면서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이어왔지만 태양광·석유화학업황 둔화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 다만 최근 공개한 유상증자 계획이 이행되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9000억원 규

모의 투자로 미래 태양광 기술 선점에 나설 수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과 채무 상환이 이뤄지며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태양광 부문에 대해 non-PEF 수요 기반과 카터스빌 공장의 전 공정 정상 가동에 따른 현지 수직계열화, 보조금(AMPC, DCA) 수령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말 미국 내 셀 통관 이슈가 해소되면서 달튼

과 카터스빌 모듈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고 카터스빌 셀 공장도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초부터는 중국산 규제와 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로 모듈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태양광 부문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다.

최대주주인(취한화)가 유상증자에 최소 100%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약 7000억원 수준의 소요 자금은 보유 자산 매각과 채권 유동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샤넬의 ‘브랜드 갑질’… K-뷰티 상표에 “‘COCO’ 안 돼”

韓 화장품회사 (주)코코데메르
네덜란드 상표 출원 과정서 복병
샤넬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 제기
정부 차원 ‘글로벌 브랜드 대응’ 필요
中企, 글로벌 시각 브랜딩 전략 짜야
이중브랜드 전략으로 새로운 마케팅



코코데메르의 브랜드 ‘COCODEMER’.

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COCODEMER’ 상표 등록을 끝냈다. 유럽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짰다. 두바이를 토대로 중동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코데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크림, 에멀전, 섰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병을 만났다.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를 통해 COCODEMER와 관련해 두 건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샤넬을 대리하는 로펌(Banning) 측으로부터 “샤넬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표인 ‘COCO’의 정당한 권리

자이며 해당 상표는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서 Banning은 “귀사의 상표 ‘COCODEMER’는 앞부분 ‘COCO’가 지배적요소이며 시각적·발음상·개념적으로 동일해 샤넬의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샤넬 제품이거나 샤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코코데메르 김유민 대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상표 등록을 마쳤는데 유독 유럽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샤넬이 이익을 제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출 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고 독일 등 추가 진출 계획도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응팀’과 같은 조직을 꾸려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코코데메르(COCODEMER)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 ‘Coco de Mer’에서 따온 이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에도 ‘coco’를 놓고 샤넬과 한국의 또다른 중소기업 브랜드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샤넬은 앞서 한국 기업의 화장품·향수 브랜드인 ‘코코도르(cocod’or)’에 대해 역시 ‘코코(coco)’와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2020허1213 판결)은 달랐다. ‘코코(coco)’와 ‘코코도르(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며 최

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판례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코(COCO)’와 ‘코코데메르(COCODEMER)’간 분쟁 결과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지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 위해 주요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브랜딩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겹치지 않도록 ‘이중 브랜드 전략’을 짜야 법적 분쟁도 피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전선, 초고압·해저케이블로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매출 7.5조, 영업이익 2798억
LS에코에너지·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 실적도 성장세 뒷받침

LS전선이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전선은 30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5882억원, 영업이익 27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초고압케이블과 해저케이블 중심의 수요 확대, LS에코에너지 등 자회사 실적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2024년 매출 6조7653억원, 영업이익 2745억원과 비교해 각각 12.2%, 1.9% 늘어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주잔고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잔액은 7조63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회사 실적도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9601억원, 영업이익 66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0.5%, 49.2% 증가했다. 2년 연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LS전선

속 두 자릿수 성장과 함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유럽과 북미 시장을 겨냥한 LS전선과의 교차판매 확대, 아세안 지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고성장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S마린솔루션도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물량 증가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매출은 2442억원으로 전년 1303억원보다 87.4%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전선 관계자는 “글로벌 톱티어 기

업으로서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의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2030년 매출 10조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LS전선은 생산과 공급망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인 멕시코 버스데트 공장을 건설 중이며 비중국권 유일의 희토류 원료 공급사인 호주 라이너스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대중기협력재단, 中 小 企 技 術 分 쟁 부 담 낮 춘 다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1억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中 最 大 經 濟 團 體 와 交 류 확 大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맞손’

중기중앙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선 가오원룽 주석, 뤼 라이쥘 부주석 및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이 주도해 설립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류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베트남 생산기지 필두 재생에너지 전환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법인 공장애
17.5MWp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HS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동나이성 연짜공단 내 베트남법인 공장 지붕에 총 17.5MWp(메가와트 피크)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IT 전문기업 누리플렉스와 함께 추진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법인에 디지털 에너지 관리 기술과 재생에

너지를 접목해 ‘스마트 그린 팩토리’라고 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제조 허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태양광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설비 안정성과 생산성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오는 8월 추가 설비가 완공되면 연작 공단 내 총 37.5MW

p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전체 설비가 가동되는 하반기부터는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생산 원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확대되면서 지속가능경영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필두로 각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비 확대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경쟁사에 3000억 베풀한 라인야후

카카오게임즈 투자 '이례적 행보'

3차배정 유상증자·전환사채 인수 카젠, 신작 부진으로 외부투자 필요 라인야후, 게임 콘텐츠 강화 전략

라인야후가 카카오게임즈 투자에 참여하기로 해, 플랫폼 경쟁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법인인 A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회사로, 네이버와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자 주체는 라인야후가 출자한 사모펀드 LA AA 인베스트먼트로, 제3차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이번 거래로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카오의 지분율은 약 1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라인야후의 투자는 카카오의 사업 구조 개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최근 비핵심 자산 정리와 계열사 축소를 지속하며 재무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대표 흥행작 이후 뚜렷한 신작 성과를 내지 못하며 실적 부진이 이어진 상황이며, 외부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라인야후 입장에서는 게임을 통한 체류시간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메신저와 포털 중심 사업 구조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게임즈 사무실

/카카오게임즈

임 분야 확장을 모색해왔으며, 자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거래가 플랫폼 경쟁 구도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이다. 통상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 생태계 중심 확장 전략을 택하지만, 경쟁사 계열사에 대한 투자 사례는 드물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거래를 넘어 네이버와 카카오 간 플랫폼 관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경쟁 플랫폼 계열사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 투자라기보다 플랫폼 간 관계 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 변화와 맞물리며 해석이 확대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지분을 보유

한 구조지만, 최근 일본 내 정책 환경 변화 이후 경영 주도권이 소프트뱅크 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및 클라우드 분리 작업을 진행하며 독자 체제 구축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의 의사결정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뱅크 중심으로 전략 방향이 재정렬되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거래를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이버 역시 라인야후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에서의 이해관계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넥슨, '오버워치' 한국 퍼블리싱 맡는다

블리자드와 협력... 연내 서비스 목표 운영체제 통해 이용자 점점 강화

넥슨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PC '오버워치' 한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서비스를 목표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오버워치'는 2016년 출시 이후 글로벌 이용자층을 확보한 블리자드 대표 IP다. 블리자드는 지난 2월 '오버워치 스포트라이트' 쇼케이스를 통해 신규 영웅과 장편 스토리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며 콘텐츠 확장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넥슨은 국내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블리자드는 IP 제공과 게임 개발을 지속 총괄한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한국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 운영과 콘텐츠



(왼쪽부터) 마이클 창 블리자드 아시아 총괄 부사장, 월터 콩 라이브 서비스 게임/모바일 개발 부문 선임 부사장, 넥슨 선승진 슈터본부장, 이주옥 파트너십사업본부장 /넥슨코리아

츠를 선보이고, PC방 중심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서비스 이관을 넘어 '하이퍼 로컬라이징'을 통한 맞춤형 운영 전략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내 이용자 환경에 맞춘 콘텐츠와 이벤트, 운영 체제를 통해 이용자 접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검색 점유율 64% '8년來 최대'

AI 브리핑, 키워드 검색과 차별화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앞세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AI 브리핑은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약 22건의 주요 업데이트를 거치며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왔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요약 답변과 출처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건강, 공공, 금융 등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화 검색을 확대하고, 사실형 질의에 대해 핵심 답을 상단에 바로 노출하는 '즉답형 기능'을 도입하며 정보 전달 속도와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서는 표와 이미지 기반 시각화 답변, 핵심 정보 하이라이트, 연관 키워드 재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가독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고도화 전략은 이용자 지표 상승으로 이어졌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이 통합 검색 내 쿼리 비중 20%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관련 질문' 클릭 수는 출시 초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검색 키워드 클릭률도 86.1% 늘어 이용자 체류 시간과 탐

색 깊이를 동시에 확대했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성과가 확인된다.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64.39%로 집계됐다. 이는 구글 28.54%,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3.66%, 다음 2.72%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AI 기반 검색 전환에서 비교적 빠르게 이용자 경험을 안착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요약 중심의 AI 검색이 실제 사용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네이버는 비교·정리형 답변 등 실용적인 기능으로 이용자 적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색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읽히는 검색'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며 "커뮤니티 기반 정보까지 결합하면서 국내 이용자 특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향후 AI 브리핑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억화 모델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조직을 확대해 적용 범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넓히고, 하반기부터 AI 검색 결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광고 모델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AI 비용 급락... 기업 전략이 성패 좌우"

가트너 "LLM 추론 비용 90% ↓ 고급 AI 기능, 더 많은 토큰 필요"

가트너가 2030년까지 1조 파라미터 규모의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 비용이 2025년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가트너는 생성형 AI 모델이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약 3.5비트(약 4자) 수준의 데이터로 정의하고, 반도체와 인프라 효율성 개선, 모델 설계 혁신, 칩 활용도 증가, 추론 특화 반도체 확대, 엣지 디바이스 적용 확대 등을 비용 하락 요인으로 제시했다.

월 소머 가트너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비용 절감은 반도체

및 인프라 효율성 개선, 모델 설계 혁신, 칩 활용도 증가, 추론 특화 반도체 확대, 그리고 특정 활용 사례에서의 엣지 디바이스 적용 확대 등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트너는 2030년 기준 LLM의 비용 효율성이 2022년 초기 동일 규모 모델 대비 최대 100배까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프런티어 시나리오(최첨단 반도체 기반) ▲레거시 혼합 시나리오(기존 반도체 혼합 활용)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혼합 시나리오의 연산 성능이 낮아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큰 단가 하락이 기업의 전체 AI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는 않을 것

으로 분석됐다. 고도화된 AI 기능일수록 더 많은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소머 애널리스트는 "제품 총괄 책임자(CPO)는 범용 토큰 가격 하락을 고급 추론 역량의 대중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AI 기능은 사실상 제조 비용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고급 추론을 뒷받침하는 컴퓨팅 자원과 시스템은 여전히 희소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렴한 토큰 비용으로 야키택터 비효율을 가리는 기업은, 향후 에이전트 기반 AI 확장 단계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트너는 향후 다양한 모델을 조합해 워크로드를 분산하는 운영 전략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올리브네트웍스, 'AX 컨퍼런스' 성료

AI 인프라 설계·운영 전략 공유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AX 인프라&OPS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렸으며, AI 인프라 설계와 운영 전략을 주로 다뤘다. 유통, 제조, 금

융 등 다양한 산업의 IT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AI 도입을 넘어 데이터 환경과 운영 체계 설계까지 포함한 인프라 전략과 실행 방안이 공유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인프라 전략 수립부터 구축, 운영, 비용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서현 기자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AX INFRA & OPS 2026' 컨퍼런스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AI 인프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500명도 가능... 유튜브 쇼핑 제휴 완화

(구독자)

크리에이터 수익 진입 장벽 낮춰

유튜브가 쇼핑 제휴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구독자 5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영상 콘텐츠에 브랜드 제품을 태그하고, 시청자가 이를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일반 영상뿐 아니라 쇼츠,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적용되며,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크리에이터 수익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1만 명에서 5000명,

올해 초 1000명으로 기준이 완화돼 왔으며, 이번에는 500명까지 낮아졌다.

유튜브는 관심사 기반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추천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에 주목해 쇼핑 제휴 기능을 지속 확대해 왔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초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독자 1만 명 수준 채널의 경우 전체 수익의 70~80%를 쇼핑 제휴를 통해 확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빛나 기자

격해지는 변동성 장세... 전문가 “리스크 완화 무게뉘야”

중동불안에 코스피 급등락 반복
증권가, 변동성 국면 지속 전망
“실적 중심 선별대응 필요 시점”

#개인 투자자 직장인 박모(30)씨는 30일 오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하루종일 고민에 빠졌다. 20만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어느새 '17만원전자'(주가 17만원)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장기 호황국면이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중동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씨와 같은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저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가 어디로 될까.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주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520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5.18% 급락하며 5156선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3.02% 하락한 1107.05로 마감했다.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에 거래를 마치며 외국인 수급 부담을 키웠다.

이날 증시는 흥해 봉쇄 우려 등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

압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수도 사나를 접수하고 2015년부터 7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온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편을 들어 흥해 향로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5100~5900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이란 간 협상 과정, (내달 1일 나을)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한국 3월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 구글 테보퀀트발 반도체주 주가

불안 완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소 장세’ 예상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경우 하락 구간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의 중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도 가능하다”며 “리스크 확대보다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둘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는 선행 PER 8배 수준의 디밸류 구간에 진입했다”며 “2차 변동성 구간 역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유동성·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환경”이라며 4월 증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2분기 증시를 ‘멀티플 장세’가 아닌 ‘이익 장세’로 규정하며

실적 중심의 선별 대응을 강조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가늠 변수도 명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PMI)와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 제조업 확장 국면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출 환경 지속성을 가능할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노동시장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역시 변수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구글 ‘테보퀀트(거의 데이터의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6분의 1로 줄이는 압축 기술)’ 이슈로 흔들린 반도체주 흐름과 다음달 7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도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나 연구원은 “테보퀀트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융위, 상장사 자사주 공시규제 대폭 강화

보유·처리·이행현황 연 2회 공시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수단 기대”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인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 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 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약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로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인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보통주 주당 최소 배당금 1600원 유지”

자본 효율화 통해 주주환원 지속 확대

한양증권이 지난 27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신규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27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을 열고, 신규 CI를 선보이는 한편 향후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양증권의 새 CI는 ‘HY’ 심볼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한양증권 로고 타입은 브랜드 자산을 고려해 유지했다. 70년의 역사와 대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온 경영 전략, 성장 방향성을 함께 반영했다.

한양증권은 신규 CI 선포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도 공개했다. 보통주 주당 최소 배당금 1600원 또는 배당성향 30%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 효율화를 통해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지속



한양증권이 27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을 열고 향후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양증권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70년 금융시장의 파고를 이겨내고 우뚝 선 한양증권은 이제 미래 70년 성장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수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강한 중형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쟁 리스크에 공매도 급증... 순보유 잔고 16조 돌파

이달 8180억 증가... 현대차 1.7조 최고

이란 영토 내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전 우려가 커지자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16조97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6조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는 8180억원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30%에서 0.35%로 커졌다.

25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현대차로 1조7550억원이다. 이어 한미반도체(1조5740억원), 미래에셋증권(8270억원), 포스코퓨처엠(6640억원), 한화시스템(4410억원) 순이

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값은 투자 기법이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통상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 코스피는 9.64% 내렸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진안군 ‘행복뚝딱 의료봉사’ 성료

어르신 대상 의약품·기념품 전달

KB증권은 지난 29일 전라북도 진안군을 찾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뚝딱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뚝딱 의료봉사’는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의료가 닿지 않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포용금융 실천

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KB증권 직원과 ‘열린사회’ 의료진 등 35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스포츠공감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르신 14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정형외과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치료를 받으신 어르신을 위해 상비약, 영양제 등 간단한 의약품과 기념품도 함께 전달했다.

/신하은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수수료 등 통합연금포털서 신규 공개

고용부,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 확대 알 권리 강화·사업자 건전경쟁 유도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항목 신설 제도별 적립금·계약건수 공시도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별로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등을 합산한 '수수료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비 적절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깊이도 더해졌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각 제도별로 사업자들의 적립금 현황과 계약건수가 상세히 공시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통계 확대에 이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더해, 오는 4월 중에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검증을 마친 2025년 말 기준 최신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를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한정적이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합천·남원' 농촌특화지구로 재편

개소 당 최대 100억 규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0억~100억원 규모(국비 50%)를 지원한다. 주거·산업·경관 기능을 집적해 농촌을 생활·산업·관광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합천군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펫-웰니스'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백면 일대에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펫푸드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체험, 숙박, 관광,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에 나선다. 남원시는 스마트팜과 가공·체험 산업을 결합한 농산업 집적 모델로 차별성을



경남 합천 소재 농업기술센터. /뉴시스

인정받았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과 가루쌀 생산지 등을 연계해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공장 철거 및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레isure시설과 힐링공원, 마을공공구관장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만족도 98점... 우수 산재 의료기관 33곳

근로복지소, 우수기관 33곳에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등 혜택 환자 만족도, 전년비 1.1점 올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98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현황) /근로복지공단

구분	의료기관명
최우수 (16개소)	든든한병원, 큐병원, 구포성심병원, 21세기병원, 진천신라병원, 서울병원, 새동산병원, 전병원, (의)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베스트수병원, 대구시티병원, (의)감을의료재단 갑을녹산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척척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의)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우수 (17개소)	빌리브세움병원, 김천제일병원(덕산의료재단), (의)장호의료재단녹동대병원, 힘내라병원, 수월버팀병원, 울산병원, 조은마디병원, 목포기독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송호육병원, 검단탑병원, 서울바른척도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인천백병원, 두손병원, 더블유병원, MS재건병원

했다. 공단은 환자 중심 치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 '든든한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병원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료기관 33곳에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함께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건설업 역성장... 지역경제 둔화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

지난해 전국 건설업 성장률이 뒷걸음질하면서 각 지역경제도 둔화·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성장의 영향에 전국 경제성장률은 5년 사이 최저 수준인 1.0%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0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질 GRDP는 전년도에 비해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GRDP는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실제 생산량 증가만을 반영한 지역경제 규모 지표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전체 성장세 둔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9.3%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9%로 그나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동남권은 각각 0.7%, 0.2% 증가했고 대경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업 부진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호남권은 -0.7%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광업·제조업(7.6%)과 서비스업(2.0%) 증가에 힘입



어 4.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2.3%)과 경기(2.0%)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제주(-2.0%)는 서비스업(-2.1%)과 건설업(-16.5%)이 동반 부진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5308개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고용부, 내달부터 결산서류·정관 조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5308개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이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각 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

편,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 실시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착수한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사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5대 핵심과제' 건설현장 적용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내실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30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상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규

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부산시, 금융혁신 거점 ‘디스페이스’에 5개 기업 유치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위치
디지털·해양·혁신금융기업 입주
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대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조성한 금융 혁신 거점 ‘디스페이스(D-space)’의 입주기관 공모 결과,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개 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KDX컨소시엄(조각투자장외거래소 준비법인)의 입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혁신금융 등 부산 금융중심지의 3대 전략 분야를 선도할 기업들로 ▲디지털금융 분야 KDX준비법인·DB증권 ▲해양금융 분야 워터라인파트너스·클락스스코리아 ▲혁신금융 분야 시너지IB투자 등 총 5개사이다.

이는 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홍보 활동과 전략적 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전했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컨소시엄) 준비법인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DB증권이 디스페이스에 동지를 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조각투자장외거래소는 실물자산 기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DB증권은 해양·선박 등 부산 특화 토권증권(STO)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해운

중개기업인 클락스스코리아와 해양특화 자산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가 합류한다. 두 기업의 참여로 부산 해양 금융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클락스스코리아는 부산지점 설립을 통해 국내 해운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해운시장 정보와 연계해 해양금융 자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워터라인

파트너스는 해운 ESG펀드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투자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하반기 서울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항만 인프라 중심의 ‘부산 혁신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금융 분야의 시너지IB투자는 유망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내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혁신금융 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이를 연계한 활발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세계 금융중심지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5개사 유치는 부산이 국내를 넘어 세계 금융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계기”라며 “디지털과 해양, 기술이 융합된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바탕으로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금융 도시로 당당히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 확대

경주시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4곳 선정

전남도는 2026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으로 강진·장성·완도·구례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관광시설을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사업은 ▲강진군 유취시설 활용 체험형 야간경관 조성 ▲장성군 미디어콘텐츠 기반 기념관 리모델링 ▲완도군 미디어아트 콘텐츠 조성 ▲구례군 지역 특산물 활용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확정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797명을 확정하고 279억원 규모 대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면세유 및 농자재비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연리 1%의 저금리를 적용하며,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리 0.8%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797명이며, 농자재 구매와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시·군청 등 도내 55곳 의무화
본청 하루 3회 준수 안내 방송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공공 부문이 나선다. 경남도청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시·군청 등 도내 55개 공공기관 전체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본청의 경우 하루 3회 준수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오전과 오후 각 3회씩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도민 대상 캠페인도 병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26일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이번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승용



경남도가 중앙 정부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한다. /경남도

차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위기를 극복하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저층 출입 시 계단 이용 ▲불필요한 조명 끄기 및 점심시간 소등 ▲안 쓰는 가전 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12대 도민 행동’ 동참도 요청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봉화군, 교류도시와 ‘관광 상생’ 추진

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경북 봉화군이 교류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관광 혜택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협약을 넘어 ‘체감형 정책’으로 확장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의 실질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봉화군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력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시행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자매·우호도시 주민들이다. 수도권과 부산권 주요 도시가 포함된 만큼, 봉화를 찾는 외부 방문객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교류의 실질화’다. 그동안 자매도시 협력은 문화 교류나 행사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주민이 직접 체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경.

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교류의 의미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관광이라는 공통 분모를 활용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대표 수목원으로,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청신도시, 균형발전 거점 자리매김

도청 이전 10년... 2.3만명 거주

경북도청신도시가 도청 이전 10년을 맞아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도청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는 현재 약 2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기반 확충과 기능 강화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전체 면적 1만960㎢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2단계 건설사업은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학교, 의료시설 등 주요 사업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

면서 도시 활성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성과로는 행정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이 꼽힌다. 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집중되며 행정타운이 형성됐고, 북부권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 대상 109개 기관 중 92개 기관이 이전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80개 기관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주거와 생활 여건도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공동주택 입주율은 98%에 달하며 교육·보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 환경이 자리 잡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중기부 지원 사업에 부산 中企 11곳 선정

3년간 전 주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부산 기업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최종 선정 결과,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11개사가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531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2개월에 걸쳐 성장성·수익성·혁신성 등을 종합 심사한 끝에 100개사가 선정됐다.

도약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개척을 통해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사업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매년 100개사씩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기 참여 기업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보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해울이콜센터 야간 확대 운영

울산시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 ‘120 해울이콜센터’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해울이콜센터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 중이다.

야간 콜센터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버스 분실물 ▲여권 발급 ▲상수도 요금 ▲아이문화패스 카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식재료·포장재 가격 급등... 치킨 등 외식물가 '비상'

1년만에 닭고기 가격 10% 올라 포장용기 인상률 최대 30% 달해 매장 운영 전방 비용압력 가중 일부 프랜차이즈 가격조정 검토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정육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닭고기 원가 급등과 포장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원재료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국제 정세와 원자재 수급 등 외부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워 올여름 외식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30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마니커 등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닭고기 가격을 5~10% 인상했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지난달 중순 3% 안팎 인상에 이어 이달 초 추가로 3%가량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파는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기준 닭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0% 상승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닭고기 매입 단가가 최근 10% 이상 오르며 원가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있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AI로 육용 종계 살처분이 44만 마리로 늘어 1년 전 같은 기간의 3.5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병아리 생산 기반이 크게 위축된 데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겹쳤다. 닭고기 도매 가격은 1kg당 4256원으로 한 달 새 6.7% 상승했고, 주간 평균 소매가격도 6612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조류 등 성수기를 앞두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나

프타 수급 불안은 포장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닐류와 플라스틱 용기 등 주요 포장 자재의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가맹점 운영비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최근 포장용기 제조업체들은 원료 수입단가 인상과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8~15% 인상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일부 품목은 인상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인상과 함께 고객당 주문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회의에서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비닐 쇼핑백, 알루미늄 용기, 물류비 등 전반적인 원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공유했다. 포장재와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우 가맹점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포장용기가 박스당 1만원씩 올랐다", "일부 제품은 40% 인상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회용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배달-테이크아웃 중심 프랜차이즈 매장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 원가 상승과 포장재 가격 급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재료와 부자재, 물류비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구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격 조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외식비로 인한 소비자 이탈 우려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조 페스티벌'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윤조 페스티벌'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의 핵심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윤조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속건조, 거친 피부결, 잔주름, 모공부각, 칙칙함 등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개선하는 기능을 갖췄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달 19일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입점몰을 통해 윤조에센스(90ml/120ml), 윤조아이세럼, 윤조3종 세트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REMY-J 타올, 윤빛마사저, 구름 미니백 등 한정판 선물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글로벌 대규모 캠페인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GV, 관람 에티켓 캠페인

CGV가 티빙(TVING)과 함께 'KBO 리그'의 흥행과 성숙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 에티켓 캠페인'을 진행한다.

CGV는 지난 28일 '2026 신한 SOL KBO 리그' 개막에 맞춰 전국 CGV에서 구단 연고지별 맞춤형 에티켓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SSG 랜더스, NC 다이노스, KIA 타이거즈, 키움 히어로즈 편이 공개됐으며, 4월에는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두산 베어스의 영상이 추가로 상영될 예정이다. 구자욱, 구창모, 나성범, 네일, 문동주, 이주형, 임찬규, 최정 등 KBO 리그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직접 출연해 영화관과 야구장의 공통 관람 예절을 안내한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동서식품 '동서 애사비 콤포부차' 3종

동서식품이 봄을 맞아 애플사이다비니거(사과발효식초)의 신맛함과 콤포부차의 청량감을 담은 '동서 애사비 콤포부차' 신제품 3종(사진)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자몽과 오렌지가 어우러져 상큼함을 선사하는 '자몽 오렌지', 사인머스켓의 달콤함과 리치의 향이 조화를 이루는 '사인머스켓 리치', 국산 배와 모과를 활용하여 시원하고 맑은 단맛이 특징인 '배 모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설탕을 넣지 않아 당과 칼로리 부담을 줄였으며, 스틱형 분말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상용화 속도

인도 콘스펙 'PHA' 공급 계약 "안전성·편의성 갖춘 제품 확대"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 /CJ제일제당

EU의 환경규제인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글로벌 '탈(脫)플라스틱' 흐름이 가속화되고, 국내도 에너지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CJ제일제당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가 주목받고 있다. PHA는 토양은 물론 바닷물에서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CJ제일제당은 인도 바이오플라스틱 컴파운드 상위업체 '콘스펙(Konspek)'에 PHA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이 PHA를 납품하고, 콘스펙이 이를 활용해 컵뚜껑(포크, 나이프 등 서양 식기)에 최적화된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PHA가 적용된 컵뚜껑은 생분해가 가능하면서도 플라스틱과 유사한 내구성과 사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컵

뚜껑 기업들이 PHA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PHA의 상용화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폴바셋 일부 매장에서 시범으로 도입한 'PHA 빨대'는 전국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PHA 빨대'는 석유계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빨대와 유사한 사용감과 높은 내구성을 구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한킴벌리, 유진한 일합섬과 협력해 '크리넥스 빨아쓰는 생분해 위생행주'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PHA와 PLA(Polylactide), 펄프를 혼합한 생분해성 소재만으로 개발됐다. PHA를 위생용품에 적용한 세계 최초 상용화 사례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생분해 소재 전문 브랜드 'PHACT'를 론칭한 이후 화장품 용기, 일회용 포장재, 칫솔, 인조 잔디 충전재 등으로 PHA 적용을 확대해왔다. 최근 유가 변동성이 확대돼 나프타 등 석유계 소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PHA가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비닐 포장재와 패키징 기업들의 PHA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탈플라스틱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PHA 등 친환경 소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PHA 제품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후덕죽 셰프 '라초 짜파게티' 맛 보세요"

농심 짜파게티 특별 레시피 공개

농심이 '짜파게티'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중식 요리 대가 '후덕죽' 셰프를 발탁하고, 공동 개발한 특별 레시피 '라초 짜파게티'를 공개한다.

후덕죽 셰프는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출연해 특유의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농심은 58년 중식 경력을 가진 후세프의 요리 철학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국민 짜파게티인 짜파게티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

농심은 모델 발탁과 함께, 후 셰프와

손잡고 짜파게티를 더욱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라초 짜파게티' 레시피를 공동 개발했다. '라초(辣炒)'는 맵게 볶는다는 뜻으로, 짜파게티를 매콤한 라초 소스에 볶아 진한 감칠맛을 살린 레시피다. 삼겹살과 고추, 마늘, 두반장, 식초 등을 함께 볶아 라초 소스를 만든 뒤, 삶은 면과 짜파게티 분말스프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올리브 조미유를 넣어 비비면 완성된다.

농심은 소비자들 사이 라초 짜파게티 레시피를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짜파게티 패키지에 레시피 정보를 반영해 유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삼겹살·목심 990원에 드려요"

내달 2일 '메가통큰' 2주차 행사

롯데마트가 4월 2일부터 8일까지 '메가통큰' 2주차 행사에 돌입한다.

'메가통큰'은 롯데마트-슈퍼가 연 2회여는 최대 쇼핑 행사다. 앞서 26일부터 진행된 1주차 행사에서는 한우·계란 중심 먹거리 할인에 힘입어 26~29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고, 한우와 계란 매출도 각각 24%, 34% 증가했다.

2주차에는 먹거리에 더해 생필품 할인까지 확대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은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하며, '부채

살(100g)'은 1590원에 판매한다. '끝돼 삼겹살·목심(100g)'은 300톤 물량을 확보해 990원에 선보인다. 수산물도 '꽁어회', '햇명게', '전복' 등을 수산대전 및 카드 할인을 더해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보조개 사과'와 '상생참외' 등 농산물도 30% 이상 할인한다.

2주차 핵심은 '반값 생필품'이다. 위생백·지퍼백,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가공식품은 '다다익선' 혜택으로 봉지라면 전 품목 '2+1', 즉석카레·짜장 '2+1', 국·탕·찌개 '1+1' 등을 진행해 저장식품 중심의 체감 할인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HLB, 담관암 신약 美 FDA 본심사 착수... '연쇄 승인' 기대

'리라푸그라티닙' 9월 승인 결정
7월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발표
항암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속도



HLB /HLB그룹

HLB그룹이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그룹 내 기존 핵심 과제인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동시에 '항암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FDA로부터 담관암 2차 치료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한 신약허가 본심사 착수 통보를 받았다.

올해 1월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두 달 만이다. 특히 이번 본심사 착수와 함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향후 약 6개월에 걸쳐 오는 9월 27일 안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보통 본심사 착수 시점부터 약 10개월이 걸리는 일반 심사보다 4개월 단축된 일정이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암세포 성장, 분화 등과 관련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46.5%, 질병 조절률(DCR) 96.5%,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mDOR) 11.8개월 등이 확인됐다. 특히 범-FGFR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에서는 ORR 23%, DCR 77% 등을 기록해 항종양 활성을 보였다.

리라푸그라티닙의 FGFR2선택성을 기존 범FGFR 저해제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존 범FGFR 억제제인 페미가티닙(36%), 푸티바티닙(42%) 대비 경쟁력 있는 효능을 입증했다.

리라푸그라티닙의 이러한 성과는 HLB주력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 절차와 맞물려 HLB그룹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간암 신약 후보물질로 올해 1월 미국 FDA에 세 번째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 약의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은 간암 1차

치료제로 2023년부터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9월, 2025년 3월 미국 FDA로부터 각각 서류보완요구서한을 수령해 품목허가 승인은 두 번 불발된 바 있다. 특히 리보세라닙은 병용 약물인 캄렐리주맙의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이슈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7월 리보세라닙, 9월 리라푸그라티닙 등에 대한 '연쇄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된다.

실제로 HLB그룹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비롯한 대형 로드맵을 지속 밝혀 왔다.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병용요법 ▲담관암 2차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선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암종 불문 항암제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첫 순서인 리보

세라닙·캄렐리주맙병용요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양곤 회장은 지난해 리보세라닙 허가 불발 당시에도 "리라푸그라티닙 등 후속 파이프라인 가속화는 대체 방안이 아닌 당초 설계된 전략"이라며 자신감을 비친 바 있다.

김동건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는 "리라푸그라티닙이 본심사에 착수한 것과 우선심사로 승인결정이 단축된 것은 기업가치에 대단히 고무적인 신호"라며 "7월 내 간암신약의 승인과 상업화, 9월내 담관암 신약의 승인과 상업화 등 빅이벤트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리라푸그라티닙의 암종 불문 항암제 임상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유한양행, 美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혁신기업 '휴이노'와 전략적 업무협약
AI 심전도 모니터링·임상예측 솔루션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인 '메모 패치 M', '메모 큐', '메모 케어' 등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사는 ▲미국 내 판매망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메모 패치 M은 최대 8일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초경량 웨어러블 심전계다. 제세동 치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메모 패치 M을 포함하는 메모 큐는 입원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분



지난 26일 유한USA 본사에서 윤태원 유한USA 대표(왼쪽)와 길영준 휴이노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등의 의료진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원격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 통신망 공사 없이 기존 병원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메모 케어는 최장 14일까지 수집한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병원은 물론 재택이나 병동의 환경

에서까지 정밀 진단을 구현한다.

바이탈 피카소는 휴이노 자회사 휴이노에임이 자체 개발한 의료기기다. 일반 병동 환자의 활력징후 데이터를 활용해 저혈압, 저산소증, 심정지 등 주요 임상 악화를 사전에 예측한다. 지난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청하 기자

바이오힐보, 슈링크홈과 홈케어 세트 선봬

스킨 부스터 샷 조합해 효과 극대화

CJ올리브영은 오는 4월 자체 브랜드 '바이오힐보'에서 부스터 홈케어 기획 세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힐보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이번 세트는 피부미용기기 전문 기업인 슈링크HOME과 협력해 기획했다. 바이오힐보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엔에이디(NAD) 글로우 파워 세럼 등에 슈링크HOME의 스킨 부스터 샷을 조합한 구성이다.

특히 지난해 선보인 협업 세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럼 제품군을 확장했고 뷰티기기 기능을 고도화해 집에서 전문관리 수준의 스킨케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스킨 부스터 샷의 경우,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제품으로 기존



'바이오힐보X슈링크홈' 부스터 홈케어 기획 세트 /CJ올리브영

모공 중심 관리에서 광채, 볼륨, 탄력 등을 아우르는 기능을 갖췄다.

바이오힐보 관계자는 "하나의 루틴으로 탄력, 광채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며 "세럼과 디바이스의 시너지를 높여 간편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홈케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플론, '종근당'과 이중항체 공동 연구

난치성 암질환 파이프라인 발굴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 애플론은 종근당과 협력해 '어피맵 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이중항체 공동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난치성 암 질환에서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하기 위해 각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애플론이 보유한 '어피맵'을 활용한 이중항체 플랫폼은 종양 미세환경 등에 특화됐다. 암 질환이 발생하는 특정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한다. 기존 면역항암제가 가진 전신 독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치

료 효능은 높이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종근당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신규 항체를 융합해 암세포와 면역세포에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치료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서로의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략적 자본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한 바 있다.

종근당은 지난해 5월 122억원 규모의 애플론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단일 주주 기준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분율은 7.33%다. 또 종근당은 애플론의 혈액암 CAR-T 치료제 '네스페셀(AT101)'의 국내 독점 판매 우선권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당 없는 '얼박사 제로'

동아제약이 전국 주요 편의점과 네이비스터에서 '얼박사 제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얼박사 제로는 타우린 1000mg, 비타민B 3종이 더해져 피로 회복과 부족한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주요 성분인 타우린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근육 회복, 간의 해독작용 등을 통해 유해 산소를 제거해 준다.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 355mL 한 캔 기준 10kcal로 설계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설탕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기는 얼박사 제로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미국 피부과학회 연례 미팅 참가

클래시스가 최대 피부과 학회인 미국 피부과학회 연례 미팅(AAD)에 참가, 미국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클래시스는 27~31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진행되는 AAD 2026에 참여, 고주파 장비 '에버레스(볼륨머 미국 브랜드명)'와 마이크로니들링 RF 장비 '쿼드세이'와 함께 연내 출시 예정인 레이저 '리팟(REEPOT)'과 하이푸(HIFU) 장비 '울트라포머 MPT(슈링크 유니버스 해외명)'를 선보였다.

클래시스는 현지 파트너사인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s)과 함께 2024년 말 '에버레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것에 이어, 3월 '쿼드세이'를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색소치료를 사용 목적으로 승인된 레이저 '리팟'과 HIFU

장비 '울트라포머 MPT'까지 연내 출시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번 AAD에서 클래시스는 제품 전시를 넘어, 에버레스의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미국 피부과 전문의의 학술 발표 세션을 진행하며 현지 의료진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임상 기반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래시스는 미국 진출 2년차인 2026년을 기점으로, 보다 공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투자,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임상 중심의 브랜딩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에버레스와 쿼드세이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강력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송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앞두고 합동 봉사활동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 기부 봉사단은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스튜디오에서 경북 울릉군 소재 울릉중학교 1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통화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직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가 함께하는 특별한 릴레이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양사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두 손 모아' 활동을 한다. /대한항공



삼표그룹, 품질 경쟁력 위한 임직원 대상 특강
삼표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 6층 러닝센터에서 '건설재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 트렌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그룹 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품질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 단순한 제조를 넘어 가치를 만드는 삼표 품질 마인드'를 부제로 진행했다. /삼표그룹



BBQ, 가맹점과 케냐에 태양광 시스템 수도 설치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본사와 가맹점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아이리브아프리카'를 통해 케냐에 태양광 시스템 수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BBQ는 2018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식수·식량·의료 지원 등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태양광 시스템 수도 개발사업을 통해 케냐 주민 1만3475명에 식수를 공급했다. /BBQ



CJ대한통운-대리점聯, 지속가능 동반성장 '맞손'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연합회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이커머스 및 택배산업의 경쟁 격화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택배산업 구성원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추진했다. (왼쪽부터)윤재승 CJ대한통운 O-NE본부장과 전현석 대리점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리더십 어워즈'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 권위의 'CDMO 리더십 어워즈'에서 '지속가능성 리더십'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기업 최초 13년 연속 수상 기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어워즈에서 케빈 샤프 세일즈앤드마케팅 담당 부사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동국제강·동국씨엠, 32년째 임단협 무분규 타결

주요 철강사 중 가장 빠른 협상 노조, 회사 경쟁력 강화 협력 회사, 근로조건·복지 개선 화답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철강사 가운데서도 올해 가장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타결로 동국제강그룹은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3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 경쟁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열린 '2026년 단체교섭 조인식' 단체사진 (앞줄 가운데 왼쪽)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 (앞줄 가운데 오른쪽)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동국홀딩스

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고, 회사는 근로조건과 복지 개선으로 화답하며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동국제강은 지난 26일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27일 부산공장에서

각각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인천공장 조인식에서 "어려운 시기마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협력해 준 노동조합과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균건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부산공장 조인식에서 "동국만의 상생 문화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업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성경훈 동국씨엠 노조위원장은 "대립보다 대화를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임단협에 합의했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현대차 김기양 영업이사, 7000대 판매

연 평균 200대 판매

현대차는 김기양 대전지점 영업이사가 역대 세 번째로 누적 판매 7000대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1991년 입사한 김기양 영업이사는 연 평균 200대를 판매하며 35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 김 이사는 지난 2021년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해 판매거장 칭호를 얻은 바 있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전국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이사는 "매일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고객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지난해 연말에 차를



현대차 김기양 영업이사

구매하며 제 성과를 응원해 준 고객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

대상, '청년밥상문간' 증가 김치 후원

1억4000만원 상당 규모

대상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이 운영하는 김치찌개 식당 '청년밥상문간'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증가 김치를 후원하면서 3년 연속 지역 청년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 정릉점에서 열린 '청년밥상 증가김치 나눔' 전달식에는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이성구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과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송유빈 대상 사회공헌팀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은 이번 나눔을 통해 연간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증가 김치를 청년밥상문간에 기부한다. 매주 증가 전 통맛김치(10kg) 40개를 직접 배송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7일 서울 성북구 청년밥상문간 정릉점에서 열린 '청년밥상 증가김치 나눔' 전달식에서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와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상

이로써 대상이 2024년부터 후원한 김치는 총 63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2000만원에 이른다.

대상이 지원한 증가김치는 청년밥상문간 정릉점, 이화여대점, 낙성대점 등 각 지점에서 김치찌개로 조리해 지역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고유가 속 에너지 절약 동참

'차량 10부제' 등 7가지 실천계획

셀트리온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방침에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다한다는 기존 경영방침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

가격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이번 위기 상황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차량 10부제 시행 ▲조명소등 및 냉난방 기준 강화 ▲대기전력 차단 ▲전자보고 적극 활용 ▲계단 이용 독려 ▲태양광 설치 ▲클린룸 전등 교체 등 7가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나금융, 행복상자 나눔·환경정화 봉사

명동상인협의회와 진행

하나금융은 지난 2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상자 나눔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

원과 가족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상자'를 직접 제작했다. 정성껏 준비된 200여 개의 상자는 명동 지역 소상공인 약 100여곳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특히 행복상자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일회용 앞치마 ▲종량제 봉투 ▲구급상자 ▲주방용 니트릴 장갑 ▲주방세제와 고무장갑 등 실제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물품들로 채워져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카오게임즈, 글로벌 ESG '최고등급'

2년 연속 'AAA' 획득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MSCI ESG 평가는 전 세계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을 평가해 AAA부터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2년 연속 AAA 등

급을 기록하며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체계(TCFD) 기준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과 ISO 14001 인증 획득을 통해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고도화하고 보안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끌어올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내부 감사 조직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DB증권 ◇보임(본부장) △PF1본부장 백진욱 △PF2본부장 서석민 △PF3본부장 유승중 ◇보임(팀장) △디지털컨설팅팀장 이정준 △IB솔루션1팀장 심현보 △부동산금융1팀장 육명환 △부동산금융2팀장 양양식

부음

▲원운순 씨 별세, 윤신순·세종·종만·종배·종선 씨 모친상, 윤정아(문화일보 정치부 차장)·태수 씨 조모상 = 29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금강장례식장 특실, 발인 31일 오전 11시, 장지 천안봉안당. (041)834-0100

터보퀀트 등장... '추론하는 AI 시대' 진입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구글 리서치가 2026년 3월 말 발표한 '터보퀀트(TurboQuant)'는 단순히 메모리를 아끼는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AI)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시스템적 혁신'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터보퀀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억의 압축'이다. 기존 AI 모델은 대화를 길게 이어 갈수록 과거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KV(키 밸류) 캐시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투자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터보퀀트는 이 데이터를 정확도의 손실 없이 6~8배까지 압축하고, 연산 속도는 오히려 8배까지 높이는 기술이다.

AI는 지난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장 이후부터 몇 차례의 충격에 가까운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왔다. 당시 알파고는 기술적 성격이 강했다. 핵심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증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딥시크는 가성비의 혁명을 가져왔다. 중국의 AI업체가 글로벌 빅테크 못지 않은 성능을 초저비용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IT

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번 터보퀀트는 그 똑똑한 AI를 '어떻게 싸고 빠르게 보급할 것인가'란 경제적 해법을 제시했다. 추론 시 발생하는 하드웨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AI의 범용화, 운영단계의 효율화에 파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터보퀀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앞으로는 AI 간의 '긴 문맥(Long Context)'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한계 때문에 수만 단어 이상의 대화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터보퀀트가 도입되면 같은 장비에서 6배 더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백 권의 책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는 AI'가 보편화될 것이다.

당연히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고가의 HBM이 탑재된 엔비디아 GPU 없이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낼 수 있게 된다. 구글이 터보퀀트란 기술을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터보퀀트 적용으로 무엇보다 혜택을 받을 곳은 저사양·저비용 기기들이다. 이 기기들을 활용하는 일반인들도 AI의 범용화로 누구나 손쉽게 AI 비서(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온디바이스(On-

Device) AI'가 확산됨으로써 스마트폰·노트북 등 메모리가 제한된 기기에서도 거대 언어모델(LLM)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터보퀀트의 등장으로 '추론하는 AI 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금까지는 AI를 '학습'시키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서빙(Serving)'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구글이 터보퀀트로 구글의 '제미니(Gemini)' 서비스 단가를 낮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보이는 대목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는 일반 제조 현장이다. 지금까지 제조현장에서는 운영비용(OPEX)과 하드웨어의 제약 등으로 AI 도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터보퀀트는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고가의 AI구매비용을 대폭 줄여줘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터보퀀트가 'AI 서비스의 폭발적 보급을 이끄는 강력한 촉매'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터보퀀트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간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는 더 커질 것이다.

/yhj@metroseoul.co.kr

정의선 회장의 '깊은 성찰'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깊은 성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로 내놓은 키워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까지 판매량 기준으로 4년 연속 세계 3위 영업이익률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1986년 포니 엑셀로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지 4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은 '깊은 성찰'을 강조하며 성공에 안주했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직원들에게 제품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타협은 없었는지, 품질은 당연한지 스스로 묻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브랜드 현대차그룹의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에 이어 이번에는 팰리세이드가 안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차량의 문제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팰리세이드에서 그치지 않았다. 북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기아 텔루라이드도 동일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두 모델 모두 양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현대차그룹이 브랜드의 '자존심'인 최정상급 모델에 대한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현대차, 기아가 판매하

고 있는 라인업(60여종)이 10년여 만에 많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차는 과거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에서 현재 아반떼N, 캐스퍼, 베뉴, 코나,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캐스퍼 일렉트릭, 넥쏘 등이 추가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부분변경과 완전변경 출시 기간도 과거보다 단축됐다. 다양한 차종을 개발하고 신차 출시에 쫓기면서 품질까지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부품을 개발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 등 핵심 부품 계열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브랜드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ysw@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 (음 2월 13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 60년생 시작이 반입니다. 72년생 행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84년생 주변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 49년생 심적으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73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호랑이** 50년생 서북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62년생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74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어라 하면 부당합니다. 86년생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끼** 51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63년생 따르는 운이 불안정하여 근심이 생깁니다. 75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하루를 보내세요. 87년생 허무한 마음이 남게됩니다.
- 말** 52년생 주변을 정리정돈 하세요. 64년생 귀인이 찾아와 도와줄 것입니다. 76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도모하세요. 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 뱀** 53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5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7년생 주변의 친구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89년생 협동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말** 54년생 조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66년생 오늘을 잘 넘기면 행복한 일주일을 보냅니다. 78년생 금전운과 이성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90년생 뜻하지 않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양** 55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흉한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신속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79년생 운동을 하면 길한 기운을 얻습니다. 90년생 행복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 원숭이** 56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68년생 생각지도 못한 기쁜일이 생깁니다. 80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92년생 이성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 닭** 57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69년생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세요. 81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 지게 됩니다. 93년생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 개** 58년생 재물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빠릅니다. 82년생 집에 일찍 귀가하세요. 9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이 좋습니다.
- 돼지** 59년생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71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83년생 전연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일을 이루는 것은 최악의 한 수가 됩니다.

김상회의 四季 산신신앙

산신은 신성한 곳이다. 세속의 인간들이 탐진치에 휘둘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도 산에만 들어서면 뭔가 신령스러운 기운에 조복 당한다.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일러 '산신(山神)'이라 이름 붙였다. 전통적인 산신 신앙을 보자면 산신은 건강과 수명 그리고 부와 재물을 관장한다. 부는 땅에서 나왔다. 곡식도 땅을 기반으로 양육되고 금은보화 역시 땅속에서 캐낸다. 대부분의 사찰과 암자에서는 칠성각이나 독성각은 없어도 산신각은 거의 갖추고 있다. 절이나 암자가 산속에 위치하는 것이 주된 이유기도 하지만 사찰이나 암자가 위치한 터줏대감인 산신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다. 산신은 그 산의 주된 터줏대감으로서 사찰이나 암자를 외호한다. 사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하기 이전부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악숭배 사상이 있었고 따라서 후일에 자리 잡은 불교에서는 예우의 차원으로 민간신앙적 산신을 인정한 것이면서 불교의 호법신 성격으로 변모한다.

도교에서 숭앙 되던 칠성 신앙이 불교에서 칠성 여래로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다. 게다가 산신은 준엄하다. 까다로운 만큼 청정하여 버린 음식을 먹거나 몸이 정하지 못하면 산신각엔 발을 디딜 생각도 말아야 한다. 산신도에서 흔히 보듯 산신령은 호랑이와 동자를 데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산신각에 참배할 때 시주 물로서 사탕 봉지나 과자를 많이 올리는 한다. 산신 기도를 올릴 때는 건강문제나 재수대통을 바란다. 풍족한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공통된 발원이었고, 산지가 많은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환경상 산을 관장하는 신령한 기운에 비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음력 삼월과 구월에는 대부분 사찰에서는 연례행사로서 산신제를 크게 올린다. 재수대통 기도의 대명사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4		8		1	9
	7	3			2
9			1		7
	6		4		1
		9	3		
5			1	8	
	3		1		6
	4			7	1
8	7		5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파벳을 증가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2	9	9	8	2	1	8
8	1	2	6	8	2	9	7	9
9	8	9	7	1	6	8	2	
2	8	2	1	9	7	6	9	
2	7	9	8	9	6	1	8	2
1	9	6	8	7	2	9	2	8
9	2	8	1	2	7	8	9	6
8	2	7	9	6	9	8	2	1
6	9	1	2	8	8	2	7	9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2				9	8	7
3		8				
8	9		6	4		
	4					9
		6			3	4
			5	4		7
3	1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파벳을 증가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6	9	2	2	1	8	7
2	1	9	8	7	9	2	8	6
7	2	8	8	1	6	9	9	2
9	7	2	9	6	8	2	2	1
8	6	2	1	8	2	9	7	9
1	8	9	7	2	9	2	6	8
6	9	1	2	9	7	8	2	8
8	9	7	2	8	1	6	9	2
2	2	8	6	9	8	7	1	9

통합 강원대 출범... '거점국립대'로 도약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국내 최대수준 국공립대학으로 재편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해 통합 강원대학교로 새 출범했다. 지역 분산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은 하나로 묶어 강원 전역을 아우르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 강원대가 학생 3만여 명, 교수 1400여 명 규모로 국내 최대 수준의 국공립대학으로 재편됐다. 이번 통합은 강원 지역의 넓은 권역과 지역 간 격차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 '강원 1도 1국립대' 모델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통합 강원대는 춘천·강릉·삼척·원주 등 강원 지역 4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각 캠퍼스의 기능

을 분산배치하되 공유·연합·통합 체계를 강화해 강원 전역을 하나의 고등교육 혁신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캠퍼스별로 보면 춘천은 교육·연구 거점으로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인재양성에 나선다. 강릉은 지·학·연 협력 거점으로 신소재, 해양바이오·천연물, 관광 및 동·하계 스포츠 분야를 맡는다. 삼척은 지·산·학 협력 거점으로 액화수소, 에이징테크, 재난방재 분야를, 원주는 산·학 협력 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이(E)-모빌리티, 스마트 통합돌봄 분야를 각각 특성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강원 1도 1국립대 모형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혁신의 선도모형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육부도 통합 강원대가 강원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거점국립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반도체교 개교·다자녀 동일교 배정 특화인재 키우고, 돌봄부담 줄인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전형제도 개편
서울반도체교 내년 3월 개교 예정
다자녀·장애학생 형제 동일교 배정

서울에도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생긴다. 아울러 교육감 선발 후 기고에 다자녀(3자녀 이상)와 장애학생 형제·자매·남매 동일교 배정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학전형 제도가 개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된다. 전기고는 과학·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후기고는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포함되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서울반도체교의 신설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서울시교육청

이다. 서울반도체교(전신 휘경공업고등학교)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입학생을 위한 기숙사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실 구축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8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동일교 배정 대상도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은 다자녀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남매다.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이상 자녀부터 형제·자매·남

매가 재학 중인 학교를 희망할 경우 동일교로 배정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남매가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교 배정이 가능해진다. 통학과 돌봄 과정에서 보호자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해 대상 가정의 통학·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양시, 단수 없는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인프라 확충

고양시가 기후 위기와 도시 성장에 대비한 물 관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상수도 하수도 전반에 걸친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정적인 급수와 수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배수지 증설과 노후 송수관로 개량, 하수도 기반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시는 수도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배수지 증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등으로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2,800㎡ 규모의 배수지를 7,2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

48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4월 공사 입찰을 거쳐 5월 착공이 목표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총 6.11km 구간의 개량과 3.08km 복선화 공사를 추진해 관로 내구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상수도 관리 체계 고도화도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단계를 통해 6개 급수 구역에 블록 시스템 구축과 18.4km 규모의 노후관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2-1단계 사업으로 5개 급수 구역에 대한 추가 정비 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대자 1·2구역 등 8개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화조 폐쇄를 통해 악취 문제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방대 특성화 등 대학 혁신에 1.4조 투입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발표
최대 850억 '특성화 인센티브' 신설
우수대학 지원 확대, 미흡대학 감액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에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신설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해 대학 혁신 성과를 재정지원에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8191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5617억원으로 총 1조3808억원 규모다. 여기에 올해 특성화 인센티브가 신설, 포함됐다. 특성화 인센티브는 일반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

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 강점 분야 육성을 지원하고,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오는 8월 15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는 데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과 기반 재정지원은 더 강화된다. 교육부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감액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런 'AI 코치' 고도화... 중1까지 확대

서울시, 진로·진학 지원체계 강화

서울시가 서울런에 'AI 진단-미니상담-1대1 심층 상담'으로 이어지는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AI 코치는 고도화하고, 이용 대상은 중1까지 확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런 회원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 AI 코치'를 고도화하고, AI 분석 결과를 전문 상담교사가 설명하는 '미니 진로·진학 상담'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런은 AI 진단부터 미니상담, 맞춤형 1대1 심층 상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만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년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학교 1학년 이상은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진로와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은 학생부 평가와 탐구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는다. 수험생은 수시·정시 합격 예측과 AI 모의 면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31일 (화)
음력: 2월 13일

수도권 날씨
10 ~ 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8/20, 동두천 9/21, 가평 7/19, 파주 8/20, 서울 10/21, 양평 11/20, 인천 9/18, 수원 12/20, 용인 12/20, 평택 10/20

해돋이: 06:20 | 해질: 18:5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시진핑, 대만 국민당 주석 내달 방중 초청... 4월 7~12일 본토 방문 예정

▲예멘 후티 참전 현실화...홍해 해상 공급망까지 흔드나 /사진 뉴스시스

▲中 국유 대형은행 3곳 2025년 순익 제자리... "부동산 부진·금리마진 압박"

▲인도 델리 두 번째 '노이다 국제공항' 개항...연간 1200만 명

▲"이스라엘 학전 시도에...파키스탄 '美-이란 중재' 탈선할 수도"

▲트럼프 "30일부터 20척 호르무즈 통과...이란과 만남 잘 진행"



식재료·포장재
가격 급등
외식물가 '비상'
니



Life

HLB
담관암 신약
FDA 본심사 착수
L2



의료·환경보호·보훈까지... 사회 곳곳에 닿은 '100년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고(故) 유일환 박사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1926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유한양행과 유일한 박사의 약속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사회를 어루만지는 현장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100년 전 유일환 박사가 뿌린 나눔의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아프고 낮은 곳에서 날마다 따스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내어준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사각지대' 해소

유한양행은 '제약 기업의 본질인 건강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소외 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2년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의약대생 봉사단체 프리메드와 함께 '노숙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공백에 놓인 노숙인들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해 생명 존엄을 실천한다. 2024년에만 1895명이 진료를 받았다. 2022~2024년 기준 누적 진료 수는 3709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는 물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건강생활 실천교실'은 지역 사회 내 고령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다뤄, 노인성 질환, 우울증 등을 극복하기



지난해 12월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아동용 위생 교육 책자'와 나눔상자를 직접 포장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100년간 유일한 박사 창업정신 계승 제약기업 본질, '건강의 가치' 실현

의약대생 봉사단체와 노숙인 무료진료 독거노인 위해 빵 만들기·꽃꽂이 등 임직원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병원 내 교육기관 설치, 맞춤 책 보급 환아 학습공백 없애고 정서회복 도와

매년 바자회·경매 열고 기부금 조성 플로깅 캠페인 통한 선순환가치 창출 총 6000여명 국가유공자 건강지원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대한약사회가 동참하는 전문적인 복약 지도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

유한양행 사내 봉사단도 체험형 활동을 전개하며 어르신들과 적극 소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원에 봉사단'은 독거노인 정서적 안정을 위해 모인 조직이다. 임직원들은 두 달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꽃꽂이, 다육이 화분 만들기, 리스 제작 등 원에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들은 연계 복지기관을 통해 해당 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버들바게트 봉사단'은 건강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맛있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은 반죽부터 베이킹까지 전체 과정에 정성을 기울이며 순수 빵과 과자를 구웠다. 지난해 분기별로 진행됐으며 2025년 총 200명이 넘는 어르신과 아동에게 수제 간식이 배달됐다.

유한양행은 감염 예방과 위생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어린이들에게도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손 씻기, 양치질 등 필수적인 위생 교육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책자는 2021년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처음 제작됐으며 2024년부터는 서울 소재 어린이병원을 통해 환아들에게도 보급하는 등 유한양행은 보건 교육 범위를 넓혔다. 2025년에는 병원학교 환아들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책자도 구성했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 중에도 학습 공백 없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병원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만 전국 5개 병원의 병원학교 환아 1000명이 책자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환아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눔과 환경을 잇는 선순환

유한양행은 2019년부터 연말이면 본사와

연구소, 공장에서 '바자회'와 '온라인 경매'를 열고 있다. 마련된 수익금은 장애인 자립, 소아암 환자 치료 등에 전액 사용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5000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 기부금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매년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을 판매함으로써 자원 순환에도 앞장선다.

매년 6월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는 '버들 생명 플로깅' 역시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사람을 연결하는 선순환 가치를 창출한다. 임직원과 가족이 집 근처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 소아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플로깅 캠페인은 유한양행 임직원들 일상에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런치타임 플로깅'은 점심시간이라는 막간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장 인근 환경을 집중 정비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

◆대한민국 제약 기업의 정체성 '애국'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환 박사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 운동을 활발히 한 독립운동가다. 비밀 첩보 작전과 고강도 군사 훈련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건강한 국민만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자 했다. 100년 전, 청년 유일환의 애국심은 오늘날 보훈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2017년부터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지원해왔다.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유한양행의 숙명과도 같은 기업 철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까지 총 6361명의 국가유공자를 찾아갔고 2025년에만 국가유공자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도 가졌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슬로건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을 바탕으로 의료, 보건, 봉사 등 다방면에서 사회에 기여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사내 '원에 봉사단'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작품 완성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란히 연패 빠진 '우승 후보' LG-KIA, 잠실서 격돌
▲'적수가 없다' 김효주...LPGA 타이틀 방어·2주 연속 우승 /사진 뉴시스

▲창끝마저 무뎠던 흥명보호...공격 지표 바닥 '돌파구 안 보인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 제자리 걸음...JTB C 단독중계 가나

▲봄꽃 핀 덕수궁 5개 전각 내부 개방...고종 침전도 공개
▲'렛 잇 고' 그 감동 그대로...뮤지컬 '겨울왕국' 8월 한국 상륙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